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제227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권해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환(AD본부)
- 김종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인(출판국)
- 남형주(재경국)
- 박형순(동아에드넷)
- 빈정훈(동아MD)
- 양형모(스포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사이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정기성(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성(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939)

DAMG의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담아냅니다.

인재를 최우선에 뒀던 '인촌 정신'이 이어집니다. 고용 한파에도 우수한 기자·PD 채용 규모를 늘렸고, '공선사후(公先私後)' 정신을 잇는 32번째 인촌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취약계층에 희망을 주는 '리스타트 잡페어', 성숙한 반려 동물 문화를 만드는 '슈퍼 펫 쇼'에는 세상을 향한 동아의 따뜻한 사선이 녹아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청년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감성 충만 영화 같은 드라마 <열두밤>으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동아미디어그룹만의 온기(溫氣)를 지키겠습니다.

東亞日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수습공채 PD 지원자들이 기획력, 창의력, 구성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하는 <생방송 A 스타일> 시험에 함께 할 진행자 김진 기자, 추혜정 기상캐스터, 김해현 기상캐스터와 동선을 맞추고 있다(1). 수습공채 기자 지원자들이 실무평가에서 조를 나눠 토론을 하고 있다(2). 신문박물관에서 한국 신문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DNA 10기 인턴들(3). DNA 10기 인턴들이 수료식을 마치고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1층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4).

“인재가 미래다” DAMG의 곳곳한 인재경영

DNA 인턴 채용연계율 34.2%로 역대 최고치 기자·PD 수습공채, 개성 및 다양성에 초점 맞춘 변화 시도

많은 기업들이 채용문을 걸어 잠그는 고용 한파 속에서도 동아미디어그룹은 매년 수습·경력 채용 규모를 늘려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DNA 인턴의 채용 연계율이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높았다. 채널A가 개국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한 해에 수습·방송기자를 각각 두 자릿수로 채용했다.

DNA 인턴 채용연계율 역대 최고치
동아일보와 채널A는 인턴을 뽑아 근무 과정에서 역량이 확인된 인재들을 수습으로 직접 채용하는 DNA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인턴들의 채용연계율(34.2%)은 2015년 채용연계 인턴프로그램 도입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DNA 인턴이 '명품 인턴'으로 알려지면서 인재들이 몰린 덕분이다. 인턴 제도로 인재를 발굴하려는 동아미디어그룹의 의지와 서로 맞아 떨어졌다.

DNA 인턴프로그램은 △맞춤형 실무로 꼭 채워진 교육 과정 △1대 1 상시 멘토링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 및 대우 등으로 언론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예비 언론인들 사이에선 DNA 인턴 출신이면 어느 언론사에서든 환영 받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다 보니 매해 많은 언론인 지망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올해 DNA 인턴 지원자는 1000명을 훌쩍 넘었다.

채용전환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우선 전체 지원자들 중 필기·면접을 통해 38명의 인턴이 선발됐다. 38명의 인턴은 6주 간 근무하면서 동고동락한 현장 멘토들의 평가를 받는다. 이어 △수습공채에 준하는 실무평가 △부서장 심층면접 등 관문을 거친다. 이를 거쳐 올해 13명(신문기자 5명, 방송기자 5명, PD 3명)이 최종 수습 입사했다.

올해 DNA 인턴으로 입사한 편집국 송혜미 기사는 “인턴 동기들 모두 첫 눈빛부터 강렬했고 퍼포먼스는 더 강렬했다. 인턴으로 일하면서 뒤쳐지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쏟아보니 내 ‘그릇’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인턴의 멘토로 나선 제작본부 김혜인 PD는 “선배들과 인턴 PD가 서로 열린 자세로 의견을 수용하면서 퍼포먼스가 점차 나아졌다. 인턴 과정에서도 동아미디어그룹 특유의 시너지가 나타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순발력·창의성·기획능력 등 평가
채용전환 된 DNA 인턴들이 수습 사원증을 받고 현장을 누비고 있을 무렵 동아미디어그룹은 새 식구를 맞이했다. 수습공채 과정으로 입사한 기자·PD들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 DAMG 공채 전형에는 탄탄한 기본 실력으로 무장한 직군별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문을 두드렸다. 이 가운데 서류와 필기, 실무평가, 수차례 압박 면접까지 거쳐 총 14명(신문기자 6명, 방송기자 5명, PD 3명)이 최종 합격증을 거머쥐었다.

특히 직군마다 3일씩 치러지는 DAMG 수습공채의 집중 실무평가 과정은 수준이 높고 평가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올해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고려해 합숙평가를 없앴다. 그러나 지원자가 기자·PD로서 준비된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새로운 평가를 도입해 긴장감은 여전했다. 순발력과 창의성, 기획 능력 등을 검증하는 평가로 지원자들은 “어려웠지만 참신했다” “타사 공채와 차별화된 부분”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채용연계형 인턴과 공채 입사한 수습기자 및 PD들은 11월 초 직무교육을 시작하며 동기애를 다진다. 올 겨울, 유달리 길고 추울 것이란 예보가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DAMG 수습들은 자신감이 넘친다.

또 11월에는 △세일즈·마케팅·교육 기획 △경영기획·회계 △사내번호사 △DBR 취재기자 △DBR 마케팅(이상 동아일보) △콘텐츠 비즈니스 △디지털 미디어 비즈니스 △콘텐츠 구매·분석(이상 채널A) 등 다양한 직군에서 신입·경력사원을 선발한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신진우

“인재를 아끼고 사랑했던 仁村, 그 깊은 뜻을 기립니다”

제32회 인촌상 시상식 10월 11일 열려 인문사회·교육·언론문화·과학기술 4개 분야 시상

인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32회 인촌상 시상식이 10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인촌상은 인촌의 공선사후(公先私後) 정신을 실천하는 인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권위 있고 명예로운 상이다.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이사장 이용훈)와 동아일보사는 매년 인촌 선생의 탄생일(10월 11일)에 맞춰 시상식을 열고 있다. 그동안 각 분야에서 묵묵히 공익을 위해 일해 온 한국의 거목들이 인촌상을 받았다. 1987년부터 올해까지 수상자만 모두 132명에 이른다. 이용훈 이사장은 “올해도 인촌 선생이 사업을 벌

인 각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업적을 많이 낸 분들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올해 4명의 수상자들은 이날 시상식에서 각각 상장과 기념메달,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이들은 인촌상 수상을 자랑스러워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국 근현대 정치사 연구의 초석을 마련한 인문·사회 부문 수상자 이정식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87)는 “인촌이라는 거목은 여러 곳에서 불어오는 힘겨운 바람을 겪으면서도 방패가 돼주었다. 인촌 선생을 기념하는 상을 받게 돼 무척 감사하다”고 말했다. 23년 동안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치유에 헌신한 교육 부문 수상자 김종기 푸른



사진=편집국 사진부 김재명

10월 11일 열린 '제32회 인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김중기 푸른나무 청재단 설립자, 한태숙 연극연출가, 이정식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 황철성 서울대 교수, 이용훈 인촌기념회 이사장.

나무 청재단 명예이사장(71)은 “사람의 가슴과 가슴을 따뜻하게 이으며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비정부기구(NGO)의 소임과 본질을 명심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외길을 걸어온 과학·기술 부문 수상자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54)는 “더욱 정진해 인류의 미래에 작은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인촌상에는 처음으로 연극인 수상자가 나왔다. 언론·문화 부문 수상자인 한태숙 극단 ‘물리’ 대표(68)는 “삶의 본질을 묻는, 성가신 질문을 계속하게 연극이라고 생각 한다”며 “내 질문을 계속하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편집국 문화부 조종업

드라마 '열두밤' 첫선... 시청자 가슴 울린 "널 알고 싶어"

방송 전 비하인드 메이킹 공개, 루프탑 상영회 개최
11월엔 온라인서 '명대사 맞히기' '퀴즈 이벤트' 열어



10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열두밤> 제작발표회에서 참석한 배우 예수정 신현수 한승연 장현성(왼쪽부터)이 손가락 하트표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채널A 드라마 <열두밤>이 10월 12일 첫 선을 보였다. <열두밤>은 세 번의 여행 동안 열두 번의 밤을 함께 보내게 된 두 남녀의 여행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방송 첫날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채널A는 금요일 프라임 시간대에 <열두밤>을 편성해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시청자 감성 자극한 OST

"널 알고 싶어... 아까 내가 한말."

10월 19일 방송된 <열두밤> 2회 엔딩 장면. 뉴욕에서 온 사진작가 지망생 한유경(한승연 분)은 자신의 진심을 전하며 무용수 지망생 차현오(신현수 분)에게로 한 발짝 발걸음을 옮겼다. 한유경이 갑자기 발뽀꿈치를 들어올리자 두 사람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첫 키스를 나눴다. 이때 싱어송라이터 스틸라장이 부른 '널 알고 싶어'(유경 테마)가 배경으로 깔리며 두 사람의 설렘에 잔잔하고도 뜨거운 울림을 더했다. 이날 방송 직후 온라인상에서는 드라마에 삽입된 OST의 정보를 묻는 네티즌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열두밤>은 청춘들의 공감을 이끄는 매력적인 스토리와 다채로운 캐릭터의 향연

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채널A만의 감각적인 영상미와 감성적인 OST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자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첫 방송에 맞춰 감성보컬 케빈이가 부른 'One More Flight'(현오 테마)가 10월 13일 공개된데 이어 10월 27일 스틸라장의 '널 알고 싶어'(유경 테마)가 정식 발매됐다. '널 알고 싶어'는 1~4회 열두밤의 주요 영상을 편집해 뮤직비디오로도 제작된다. '널 알고 싶어' 뮤직비디오는 11월에 멜론, 지니 등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실력과 뮤지션 프롬의 '닿을 수 있다면'과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가수 질의 '그대 내 맘에'가 11월 중으로 발매돼 감성의 온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낮설고도 특별한 서울 담은 '컬러링북'

채널A는 <열두밤> 관련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며 2049 시청자층과 여성(女心)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첫 방송일인 10월 12일에는 SNS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된 12쌍의 커플을 삼청동 루프탑 카페에 초대해 <열두밤>을 함께 감상하는 '드라마 루프탑 상영회'를 마련했다. 커플들은 상영회를 기다리는 동안 커피를 마시면서 낮설고도

특별한 서울을 담은 '열두밤 컬러링북'에 자신의 감성을 담아 색칠을 하기 시작했다. 갤러리 공간 한쪽에선 <열두밤> 메인 포스터를 배경으로 '플립북(Flip Book)'을 제작할 수 있도록 소품들을 마련했다.

행사장에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던 '열두밤 컬러링북'은 기존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굿즈 세트도 제작해 채널A 온라인쇼핑몰 '오티닷컴(shop-ott.com)'에 입점 될 예정이다.

10월 11일에는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한승연, 신현수, 장현성, 예수정 등 4명의 주연 배우들과 연출을 맡은 정현수 PD가 참석한 가운데 <열두밤>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또 10월 5일 스페셜 방송 '비포 더 나잇'을 통해 주연 배우들의 솔직한 인터뷰와 드라마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특히 <열두밤>에서 낭만 아재 캐릭터로 변신한 장현성은 같은 날 오전 채널A (뉴스A라이브)에 출연해 드라마 이야기와 자신의 연기 인생에 대한 소회를 진솔하게 전했다.

<열두밤>은 11월 중 온라인상에서도 '명대사 맞히기 이벤트',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SNS 이벤트를 진행해 시청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편성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안주영



SNS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된 12쌍의 커플이 10월 12일 밤 서울 삼청동 루프탑 카페에서 열린 '드라마 루프탑 상영회'에서 <열두밤> 첫 방송을 함께 감상하고 있다.



싱어송라이터 스틸라장이 부른 <열두밤> OST '널 알고 싶어'(유경 테마).

"동아미디어그룹 행사는 차원이 달라"... 사회관심사 반영 박람회 성황

여성-청장년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리스타트 잡페어' 반려동물의 모든 것-에티켓 등 주제 세미나 '슈퍼펫쇼'

10월 말, 취업 박람회인 '리스타트 잡페어'와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인 '슈퍼펫쇼'가 동아미디어그룹 주최로 각각 열렸다. '리스타트 잡페어'는 청년과 여성, 중장년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고, '슈퍼펫쇼'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일

반적인 취업 박람회나 산업 박람회와 달리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 차별화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

동아미디어그룹은 2013년부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며 일자리를 통해 새 인생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올해도 10월 31일, 11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리스타트 잡페어' 함께 만드는 희망 일자리 행사가 열렸다.

행사기간 동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만드는 상생 일자리를 소개했다. 일할 기회를 찾는 청년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신(新)중년 등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박람회가 단순히 일자리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데 공을 들였다. 그 결과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부처 등 100여 곳에서 140여 개 부스를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채용절차까지 진행했다. 리스타트 잡페어 초기에는 경력단절



사진=편집국 사진부 박영대

'2018 슈퍼펫쇼' 관람객들이 '펫 웰스 케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박람회였지만 지금은 경단녀 외에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신중년은 물론이고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박람회로 성장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국방부에서 전역 장병 재취업을 위한 홍보관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관도 확대했다.

올해는 '리스타트 일자리 대상'도 신설해 박람회 기간에 고용친화 경영을 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에 수여할 계획이다. 모

범적인 고용친화 경영을 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에 상을 수여함으로써 앞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아일보와 채널A, 코엑스가 주최하는 '2018 슈퍼펫쇼'가 10월 19-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슈퍼펫쇼'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 박람회로 지난해 첫선을 보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행사장에는 사흘간 6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특히 올해는 '배우는 펫 박람회'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세미나를 마련했다. 단순히 전시된 상품을 구매하는 자리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반려동물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는 '공익적 기능'을 행사 전반에 담아내기 위해서였다. 실제 펫티켓(반려동물 에티켓)부터 행동심리, 건강, 의료, 장례 등 총 10가지 주제의 세미나에 관람객들은 큰 호응을 보였다.

참가업체도 차별화했다. 가전제품, 금융, 자동차, 인테리어 등 연관 영역에서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200여 부스를 열었다. 사료를 소개하는데 그치는 다른 반려동물 박람회와 달리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연관 산업의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유통업체 상품기획자(MD)들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상품기획 및 유통 관련 상담을 해주는 자리도 주목을 받았다.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상담 과정에서 타깃 설정, 마케팅 전략 등을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편집국 산업2부 신수정 전략기획본부 사업전략팀 박창규



사진=편집국 사진부 양희성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여성 구직자들이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부스에서 일자리 적성 상담을 받고 있다.

“가을,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달려갈게”

동아일보 주최 마라톤, 서울-경주-공주서 3주 연속 열려 “서울달리기, 명품코스” 채널A 이벤트 부스엔 긴 행렬도

10월 전국의 달림이들은 동아마라톤대회로 행복했다. 서울달리기, 경주국제마라톤, 공주백제마라톤이 3주 연속 일요일에 열렸기 때문이다.

매력 뽐뽐, 젊음의 행진 “서·달을 즐긴다”
서·달은 젊은 러너들이 서울달리기대회를 일컫는 신조어다. 10~30대 참가자가 68%에 이른다. 대회 날 아침 기온이 영상 9도로 쌀쌀했다. 하지만 서울광장을 찾은 1만여 러너들은 반팔, 반바지 차림이었다.

패션 러너들은 화려한 색상의 헤어밴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채널A, 우리는 행 등이 준비한 타투, 스포츠 타이핑 등을 한 모습이었다. 소속 크루의 대형 깃발을

흔들며 응원하는 패션 러너들의 모습은 이제 서·달을 즐기는 문화로 정착됐다.

MC프라이머는 개성 넘치는 사회로 대회의 시작과 끝을 이끌었다. KT 위즈 프로 야구단 장내 아나운서 박수미 씨도 재치 있는 입담으로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채널A가 준비한 이벤트 부스엔 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긴 줄이 늘어섰다. 서울광장 동·서편을 가로질렀다. 11월 첫 방송하는 국내 최초 아카펠라 뮤지쇼 보컬플레이 부스와 본인 기록을 화면에 새길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됐다. 점프를 하거나, 자신의 기록을 가리키는 등 다양한 포즈로 개성 넘치는 서울달리기 인증샷이 올라왔다.

SNS에서 #서울달리기대회 #서·달

등의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참가의 즐거움과 완주의 기쁨을 표현한 사진과 이미지를 쉽게 볼 수 있다. 완주 메달을 들고 찍은 모습, 달리기와 공연을 즐기고 자신의 기록증을 등록해 놓은 참가자 등 이색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다.

10km 마스터스 여자부 2연패를 이룬 박민 씨(32)는 “서울달리기는 러너 사이에 명품 코스로 소문이 나 있다. 어느 대회에도 이런 코스는 없다”고 밝혔다.

‘역사 탐방과 달리기를 함께’ 경주국제마라톤
서울에서 가족 나들이를 겸해 경주를 찾은 방성호 씨(34)는 경주국제마라톤대회에 처음 참가했다. 10km를 달린 방 씨는 서울 마라톤대회에서는 볼 수 없는 역사 탐방 코스와 시민의 뜨거운 응원에 완주 후 함박웃음을 지었다.

올해는 경주 대회 역시 20~30대 젊은 층의 참가가 눈에 띄었다. 유콘(UCON) 러닝크루의 한 참가자는 “오늘 대회에 참가하는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 왔다”

며 결승 지점에 도착하는 크루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완주를 축하했다. ‘PRC’(포항 러닝크루), ‘뽀:NING’(창원 러닝크루) 등 20대가 주축이 된 러닝 동호회의 참여로 한층 젊어진 경주 대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엘리트 부문에서는 부부가 나란히 입상했다. 조세호(27·이천시청) 씨는 2시간21분57초의 기록으로 국내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고, 아내 임윤하(29·경주시청) 씨는 2시간39분00초의 기록으로 국내 여자부 2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채널A는 이번 대회를 전국에 생중계했다. 100여명의 스태프와 드론 등 최신 장비로 선수들의 생동감 넘치는 레이스는 물론 화려한 단풍으로 물든 경주의 가을을 화면에 담았다. 또 주요 관광지를 소개해 경주시 관계자들은 관광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며 만족감을 보였다.

가을마라톤 대미 장식한 공주백제마라톤

10월 28일 열린 공주백제마라톤대회는 가을 동아마라톤의 대미를 장식했다. 무녕왕릉, 공산성 등의 문화유적과 백제큰길의 어우러진 코스는 무공해 청정 코스로 유명하다. 충남 청양군청 소속으로 동아마라톤 7회 우승, 서울국제마라톤 최고 기록을 보유한 윌슨 로야냐에 예루페(한국명 오주한·30)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정섭 공주시장과 함께 10km 부문에 참가해 마스터스 마라토너와 즐겁게 달렸다.

1400여 명의 태어로스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과 잔치국수 먹거리 제공 등 가족 나들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70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박형준



10월 14일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2018 서울달리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출발선을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다.

우아한

우린 아이들의 아름다운 한반도

신문-방송-출판 손잡고 남북문제 소통 공간 마련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 문제 소통 플랫폼 ‘우아한’이 11월 초 문을 연다. ‘우리 아이들의 한반도 & 우리 아름다운 한반도’의 줄임말로 청년·학생들과 기자 및 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세대간 소통을 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동아미디어 그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온 ‘청년 콘텐츠’의 한반도 문제 버전이면서 국내 언론 첫 시도다.

청년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질문하면 기자와 전문가들이 답변한다. 청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언대에 올릴 수도 있다.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미디어그룹 내 석박사급 전문가 8명이 팀을 꾸렸다. 신석호 변영욱 이정은 윤완준(이상 편집국) 하태원 김정안 강은아(채널A) 송홍근(출판국) 기자는 각자의 기자페이지에 ‘우아한’ 코너를 열고 청년을 향해 메시지를 발송한다. 우아한 플랫폼은 동아닷컴과 채널A 모바일 메인 페이지를 기반으로 페이스북과 네이버 포스트 등 SNS로도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주성하 탈북기자의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가 여기에 새 동지를 들고, ‘북핵 타임라인’ ‘한반도 리포트’ 등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자료실도 선보인다.

편집국 디지털뉴스팀 유덕영

혈액순환과 체내 독소 배출 ‘재생 수프’

東友는 **음천**이다

성인의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몸속 열입니다. 열이 얼굴 쪽으로 올라오면 성인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같은 질환이 생깁니다. 이런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 위쪽은 차갑게, 아래쪽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동우는 몸신이다>에서는 전신 혈액 순환을 돕고 체내 독소배출에 도움을 주는 ‘재생 수프’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물 1L, 양배추 150g, 토마토 150g, 바나나 200g, 사과 150g, 우엉 150g, 단호박 200g을 준비합니다. 각 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물과 함께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여줍니다. 불을 끈 뒤 건더기를 믹서기로 잘게 갈아줍니다. 기호에 따라 간장과 식초로 간을 해주면 ‘재생 수프’가 완성됩니다. 매일 저녁 약 200ml씩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ichannela.com)를 통해 자세한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성본부 콘텐츠편성전략팀 노수아

① 물 1리터, 양배추150g, 토마토150g, 바나나200g, 사과 150g, 우엉 150g, 단호박 200g을 준비합니다.

② 각 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물과 함께 30~40분간 끓입니다.

③ 불을 끄고 나서 한김 식힌 후에 믹서기로 갈아 줍니다.

④ 기호에 따라 간장과 식초로 간을 합니다. 매일 저녁에 약 200ml씩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영 거장들이 말하는 ‘혁신시대의 애자일 전략’

‘동아비즈니스포럼 2018’ 12월 5일 신라호텔서 열려

분야의 석학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를 초청해 공유가치창출(CSV)을 주제로 첫 포럼을 시작한 후 마케팅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코틀러 노스웨스턴대 교수, 게리 하멜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르네 마보안 인시아드 교수, 톰 피터스 박사 등 세계 최고의 경영 석학을 연사로 초청해 왔다.

CSV와 마케팅 4.0 등 동아비즈니스포럼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경영개념은 실제 기업의 전략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동아비즈니스포럼 2018에서도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란 개념으로 경영학계의 판도를 바꾼 크리스텐슨 하버드대 교수, 전략 분야의 거장급 연구자인 데이비드 티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참석해 유연한 전략 혁신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 애자일 HR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피터 카펠리 미국 외튼스쿨 교수가 애자일 적용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대릴 락비 베인앤드컴퍼니 글로벌 혁신부문 대표가 애자일 확산 방법론을 제안할 예정이다.

동아비즈니스포럼은 2011년 경영학

미래전략연구소 경영지식팀 이미영

“입사 순간의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동아일보·채널A 신입 입사자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 ① 출생연도 ② 최종 직장/학교 ③ 입사 후 포부 ④ 요즘 관심사



강동웅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 ① 1991년
- ② 베이징대 신문방송학
- ③ 작년 10월 24일, 새로운 도전을 위해 퇴사했습니다. 올해 10월 24일, 동아일보사에 최종 합격을 통보받았습니다. 끈기를 인정받는 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④ 동네 형들과 농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키 큰 친구들만 할 수 있는 운동이라 여겼는데, 키가 작아도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김소영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 ① 1993년
- ② 성균관대 독어독문학/신문방송학
- ③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진정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소한 것도 다시 들여다보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④ 방탄소년단을 좋아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 힘든 일이 있어도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으면서 씩씩하게 이겨내겠습니다.



남건우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 ① 1988년
- ②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경제학
- ③ 결코 의미를 잊더라도 빼앗기지는 않겠습니다. 사회 곳곳에 흩어진 여러 사실들을 모아 희미하게나마 진실의 외연을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섬세하게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 ④ 가끔 산에 갑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가을이 새롭습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동물은 귀엽습니다. 같이 간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는 정겹습니다.



박상준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 ① 1992년
- ② 서울대 경영학
- ③ 끊임없이 공부하고 듣고 배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안을 취재하더라도 그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배경, 맥락, 담론 등을 이해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 ④ 미투운동 1주년을 맞이합니다. 현재 반성폭력운동을 둘러싸고 많은 담론이 공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투운동의 현 주소, 나아갈 방향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아형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 ① 1991년
- ②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정보미디어MBA
- ③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며 배움은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자기 반성을 게을리 하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④ 핑크 물리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주말마다 반려견과 한강공원에 있는 핑크 물리 정원으로 산책을 나가곤 합니다.



이소연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 ① 1993년
- ② 경희대 언론정보학
- ③ 뛰어난 글솜씨도 말솜씨도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잘하는 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입니다. 경청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④ 집값, 등록금, 교통비가 오르면서 청년들은 안전과 취미를 절약했습니다. 이들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김홍구 / 채널A
제작본부 수습PD

- ① 1991년
- ② 서울대 국어국문학/언론정보학
- ③ 우선 잘 듣고 많이 배우는 수습 P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PD가 되겠습니다.
- ④ 조카 여원이가 최근 제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발음이 “홍”이 아니라 “풍”과 “봉” 사이 어딘가여서 더 사랑스럽습니다.



서혜준 / 채널A
제작본부 수습PD

- ① 1995년
- ② 서울대 경영학/소비자학
- ③ 따뜻한 마음을 가진 P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근성을 가진 PD가 되겠습니다. 채널A에서 PD로서의 꿈을 펼쳐겠습니다.
- ④ 잠들기 전에 귀여운 동물 영상을 보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매력 있는 강아지 고양이 채널이 있다면 저에게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손태호 / 채널A
제작본부 수습PD

- ① 1989년
- ② 고려대 기계공학
- ③ 솔직해지겠습니다.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이런 솔직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멋진 PD가 되겠습니다.
- ④ 저는 인간의 무의식과 본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끝없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을 탐험할 동료분을 구합니다!



김지연 / 채널A
제작본부 제작지원팀 사원

- ① 1995년
- ② 웅진세무대 회계세무정보학
- ③ 솔직하고 꾸밈없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하루빨리 팀에 도움이 되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④ 저는 요즘 추리소설에 빠져 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침대 안에서 추리소설을 읽다보면 마치 시간이 녹는 것 같습니다.



손정태 / 채널A
제작본부 제작지원팀 사원

- ① 1996년
- ② 인덕대 세무회계학
- ③ 채널A에 맞는 A급 사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든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빨리 적응해서 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 ④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에 조심하려고 합니다.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틈틈이 독서를 하려고 합니다.



김민곤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 ① 1992년
- ②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응용통계학
- ③ 함부로 누군가를 대단하지 않는 겸손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오만하지 않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겠습니다.
- ④ 저는 잠이 많습니다. 이제 수습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잠을 줄일 수 있을지 참으로 고민입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박정서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 ① 1994년
- ② 경희대 언론정보학
- ③ 어느 것 하나 스쳐지나가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④ 매일 아침 다니던 수영을 당분간 쉬게 됐습니다. 아쉬움도 잠시, 취재 현장에서 깊고 빠르게 헤엄치려고 합니다.



심규원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 ① 1992년
- ② 연세대 국제관계전공/역사문화학
- ③ 겸손한 마음으로, 취재 현장에서 항상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아닐지언정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④ 겨울을 보니 배가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수습 생활을 시작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경찰서를 뛰어다니겠습니다!



우현기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 ① 1993년
- ② 고려대 정치외교학/경제학
- ③ 저의 마음속에 항상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늘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워가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④ 야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인 NC가 올해 꼴찌를 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가을야구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수아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 ① 1992년
- ② 연세대 경제학
- ③ 항상 채널A 기자가 되는 것을 꿈꿔왔는데 이번에 그 꿈을 이루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지금 이 마음,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 ④ 밤마다 영화 한 편씩을 보다 잠듭니다. 최근엔 미드 시리즈를 몰아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미드 시리즈 알고 계시면 추천해주세요.



이윤아 / 채널A
전략기획본부 사업전략팀 사원

- ① 1994년
- ② 한동대 시각디자인
- ③ 항상 배우겠습니다. 훌륭한 선배님들에게 배우겠습니다. 일하면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성장하겠습니다.
- ④ 넷플릭스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기장판과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노트북만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